

# leet 분석 2주차 - 해설

- 어려운 글을 읽어버릇하고,  
어려운 글을 읽으며 생각해 버릇할 때,  
어려운 글일지라도 잘 읽을 수 있다.

## 활용 방법

1. 실전처럼 시간 재고 풀기  
→ 한 지문에 10~13분
2. 채점 전 답을 고른 사고과정 점검.
3. 채점 후 스스로 지문 분석  
→ 내용정리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독해 과정 자체에 초점을 둔 분석.
4. 스스로 문제 분석  
→ 근거 찾기도 중요하지만, 왜 이렇게 답이 나왔을  
까에 초점.
5. 해설지를 읽으며 자신의 독해 과정과 비교·보완.

## 1일차 지문 해설

경제 이론은 경제 주체들의 행동에 관한 예측을 시도하는데, 현실에서 관찰되는 사람들의 행동이 이론에서의 예측과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경제학은 이들 '이상 현상'을 분석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발전했는데, 최근 이 흐름은 사람들의 행동에 관한 ㉠ 전통적 경제학의 가정을 문제 삼는 ㉡ 행동경제학에 의해 주도되었다.

첫 문단에 글에 방향이 상당히 뚜렷하게 제시됩니다. 경제 이론에 대한 개념이 제시된 뒤, 그것이 발전한 이유와 그로 인해 구분되는 전통적 경제학과 행동경제학. 아마도 글이 경제 주체들의 행동에 관한 가정, 예측에 대해 전통적 경제학과 행동 경제학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하겠죠? 이 정도를 인식하고 독해를 계속 진행합니다.

**전통적 경제학과 행동경제학의 차이가 본격적으로 확인되는 대표적 영역이 저축과 소비에 관련한 분야이다.**

첫 문단에서 드러난 글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경제 주체들의 행동이라는 포괄적인 범위에서 '저축과 소비'에 대한 특정한 부분에 대한 전통적 경제학과 행동경제학의 차이를 중점적으로 서술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저축과 소비에 대한 두 이론의 가정과 예측을 핵심으로 인식하면 되겠죠?

**전통적 경제학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무엇이 최선인지를 잘 알면서 전 생애 차원에서 최적의 소비 계획을 세우고 불굴의 의지로 실행한다고 가정한다. 이들은 또한 돈에는 사용 범위를 제한하는 꼬리표 같은 것이 붙어 있지 않아 전용(轉用)이 가능하다고 가정하며, 이러한 '전용 가능성'(돈에 사용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이 자유롭고 유연한 선택을 촉진함으로써 후생을 높여 준다고도 믿는다.**

전통적 경제학의 가정이 제시됩니다. 일단 비교 대상인 행동경제학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전까진 전통적 경제학을 잘 정리하면서 독해하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전통적 경제학은 사람들이 최선의 선택을 잘 알고, 최적의 소비 계획을 세우고 불굴의 의지로 실행한다는 가정을 합니다. 사람을 굉장히 합리적인 존재로 설정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에 이어 돈에 사용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 '전용 가능성'이 있어 자유롭고 유연한 선택으로 후생을 높인다고 예측합니다. 전통적 경제학이 이런 가정과 예측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내려가야 이후 행동경제학이 서술될 때 둘을 헷갈리지 않겠죠?

**전통적 경제학은 이러한 인식(인간은 합리적+돈의 전용 가능성)을 근거로 사람들이 일생 동안 소비 수준을 비교적 고르게 유지할 것이며 소득의 경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증가하다가 퇴직 후 급속히 감소하는 패턴을 보인다는 점에 착안해, 연령에 따른 소비 패턴은 연령에 따른 소득 패턴과 독립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전통적 경제학의 앞선 인식을 바탕으로 전통적 경제학이 사람이 소비 수준을 고르게 유지하고 + (연령에 따른 소비 패턴 ≠ 연령에 따른 소득 패턴)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앞서 예측한 방향처럼 저축과 소비에 대한 가정과 예측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연령에 따른 실제 소비 패턴은 연령에 따른 소득 패턴과 상당히 유사하게 나타났다.**

?? 그런데 첫 문단에서 제시된 것처럼 전통적 경제학의 예측과 실제 소비 패턴은 차이를 보입니다. 이 차이가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면 부가적인 내용이 따로 붙지 않겠지만, 그럴 일은 없겠죠? 이에 대한 서술이 분명히 이어질 것입니다.

**전통적 경제학에서는 이러한 이상 현상(연령에 따른 소비 패턴과 소득 패턴의 유사성)을 '유동성 제약' 개념을 통해 해명했다. 즉**

**금융 시장이 완전치 않아 미래 소득이나 보유 자산 등을 담보로 현재 소비에 충분한 유동성을 조달하는 데 제약이 존재하므로, 소비 수준이 이론의 예측에 비해 낮다는 것이다.**

자신들의 예측과 현실이 다른 이유를 '유동성 제약'을 통해 해명합니다. 그럼 유동성 제약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뒤에 서술되는 금융 시장의 불완전성으로 현재 소비에 대한 유동성에 제약이 있다는 것이 유동성 제약의 뜻입니다. 유동성 제약(금융 시장의 불완전성)을 이유로 전통적 경제학에서는 소비 수준이 이론의 예측에 비해 낮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여기서는 유동성 제약의 뜻을 정확하게 잡으셨다면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tip - 용어

'유동성 제약'이라는 용어는 돈의 유동적인 활용이 제약되나? 정도의 느낌이 와서 이를 크게 어려워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글에서 '000'과 같이 낯선 용어가 제시되면 지문의 앞, 뒷 내용을 통해 그 용어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전문 용어나, 지문에서 사용된 용어의 경우 통상적인 쓰임이라 생각하고 대충 독해를 진행했을 때 피를 보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항상 용어가 나오면 그것의 뜻을 파악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용어 자체에 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 지문에서 유동성 제약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이러한 이상 현상을 a 개념을 통해 해명했다.' 해도 지문을 통해 a 개념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가면 유동성 제약이라 표현되는 a 개념이라 표현되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용어의 껍데기에 집착하기보다 용어의 뜻에 민감한 반응을 하는 습관 또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청년 시절과 노년 시절의 소비가 예측보다 적은 것은 외부 환경의 제약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행동이 아니라 자발적 선택의 결과물이라며, 이를 '심적 회계'에 의해 설명한다.**

바로 전통적 경제학의 가정과 예측에 대비되는 행동경제학의 내용이 제시됩니다. 이때부터는 단순히 행동경제학만을 이해하며 독해하는 것을 넘어 둘의 비교의 기준점인 저축과 소비에 대한 가정과 예측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생각하며 독해를 진행합니다. 전통적 경제학의 예측이 실제와 다른 이유는 외부 환경의 제약이 아닌, 자발적 선택이며 이를 심적 회계에 의해 설명합니다. 심적 회계가 어떤 내용인지는 뒤이어 제시될 것이니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현금, 보통 예금, 저축 예금, 주택 등 각종 자산을 마음 속 별개의 계정에 배치하고 그 사용에도 상이한 원리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심적 회계의 개념이 제시됩니다. 자산을 종류별로 마음 속 별개의 계정에 배치하고, 사용에도 상이한 원리를 적용한다. 제시된 현금, 보통 예금, 저축 예금, 주택 등을 마음속에서 별개로 두고 상이하게 사용한다는 것이겠죠?

**자산의 피라미드 중 맨 아래층에는 지출이 가장 용이한 형태인 현금이 있는데, 이는 대부분 지출에 사용된다. 많은 이들은 급전이 필요할 경우 저축 예금이 있는데도 연리 20%가 넘는 신용카드 현금 대출 서비스를 받아 해결한다. 금융적으로 바람직한 방법은 예금을 인출해 지출을 하는 것임에도, 높은 금리로 돈을 빌리고 낮은 금리로 저축을 하는 비합리적 행동을 하는 것이다.**

심적 회계에 대해 구체적인 예시를 들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피라미드에서 맨 아래층인 현금은 사용이 가장 용이하고 지출에 주로 사용된다고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고 가정한 전통적 경제학과는 대비되게 급전이 필요할 때 예금을 인출하는 것이 아닌 대출을 하는 비합리적인 행동을 한다고 제시합니다. 두 이론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네요.

마음속 가장 신성한 계정에는 퇴직 연금이나 주택과 같이 노후  
 대비용 자산들이 놓여 있는데, 이들은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  
 는 한 마지막까지 인출이 유보되는 자산들이다. 심적 회계가 이런  
 방식으로 작동하는 경우 자산의 전용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지며,  
 특정 연도에 행하는 소비는 일생 동안의 소득 총액뿐 아니라 그  
 소득을 낳는 자산들이 마음속 어느 계정에 있는가에 따라서도 달  
 라진다.

바로 현금과 대척점에 있는 자산이 제시되네요. 퇴직 연금이나 주택같은  
 노후 대비용 자산은 현금과는 달리 지출에 마지막까지 사용하지 않  
 는 자산입니다. 이렇게 현금과 퇴직 연금, 주택을 예시로 들어 설명한  
 뒤, 자산의 전용 가능성은 떨어지며, 소비는 일생의 소득 총액만이 아  
 닌 심적 회계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전통적 경제학과 대비되는 소비에  
 대한 행동경제학의 예측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글의 전개 방향으로 저  
 축과 소비에 관련한 가정과 예측을 인식하고 글을 읽었을 때와 그걸  
 인식하지 않고 글을 읽었을 때 차이가 있음을 느끼셨을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tip - 구체적인 예시

지문을 읽을 때 수험생들이 간과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leet  
 나 수능같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집필한 지문들은 생각 없이 작  
 성한 글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해줬으면 그렇게 제시  
 된 이유가 있는 것이고 문제를 위한 글인 지문의 특성상 그 이유  
 는 이해와 문제에 관련된 부분이 많습니다.

이 지문에서 굳이 자산의 피라미드 맨 아래층의 현금, 퇴직 연금  
 이나 주택같이 유보하는 자산을 그냥 비례 관계를 통해 제시해도  
 될 부분인데 왜 구체적으로 제시해줬을까요? 그. 이런 글은 절대  
 로 그냥 쓰인 부분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독해 시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리고 문제로 출제하기 위해 쓰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  
 약 지문에서 주택을 마음속 가장 신성한 계정에 위치한다는 것이  
 제시되지 않았는데 문제에서 주택이 최후까지 유보되는 자산이라  
 는 것을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다면? 상식적으로 주택이 현금처럼  
 막 쓸 수 있는 자산은 아니지만 분명 논란이 생길 우려가 있습  
 니다. 그런데 주택은 최후까지 유보되는 자산이란 것을 지정해버  
 리면? 논란이 생길 우려가 없습니다. 이렇게 특정 개념에 대해 구  
 체적인 예시가 등장한다면 문제화될 것을 인식하고 독해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아주 사소하지만, 독해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는 습관  
 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동경제학**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잘  
 알고 전 생애에 걸친 최적의 소비 계획을 세우지만, 미래보다  
 현재를 더 선호하고 유혹에 빠지기 쉽다. 사람들은 자신과 가족의  
 장기적 안전을 지키기 위해 행동을 제약하기 위한 속박 장치를  
 마음속에 만들어 내는데, 이러한 자기 통제 기제가 바로 심적 회계  
 이다.

행동경제학은 최적의 소비 계획을 세우지만, 미래보다 현재를 더 선호  
 하고 유혹에 빠지기 쉽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통제 장치가 심적 회계라고 말하며 심적 회계  
 에 대한 재진술이 이어집니다. 심적 회계에 대해 이렇게 지속적으로  
 설명해주는 것을 보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란 것을 느끼셨을 겁니  
 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전통적 경제학과(불굴의 합리적 소비를 가정) 행동  
 경제학(합리적 소비를 지향하지만 유혹에 빠지기 쉬움) 둘의 지속적인  
 차이가 드러나네요. 계속 강조하지만 이렇게 비교 쌍이 나오면 그냥  
 읽는 것이 아닌 비교를 하며 진행하는 독해가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심적 회계의 측면에서 본다면, 전통적 경제학이 주목했던 유동  
 성 제약은 장기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지출 행위를 사전에 차단

하기 위한 자발적 선택의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심적 회계가 당  
 장의 유혹을 억누르고 현재의 지출을 미래로 미루는 행위, 곧 저  
 축을 스스로 강제하는 기제라면, 퇴직 연금이나 국민 연금 제도는  
 이런 기제가 사회적 차원에서 구현된 것이다.

심적 회계의 측면=행동경제학의 측면에서 유동성 제약은 금융 시장의  
 불완전성으로 파악한 전통적 경제학과는 다르게 불리한 지출을 차단하  
 기 위한 '자발적 선택'으로 이해됩니다. 여기서도 전통적 경제학과  
 차이를 생각하며 독해했어야겠지요? 그리고 마지막 퇴직 연금, 국민 연  
 금 제도를 예로 들며 심적 회계의 측면이 사회적 차원에서 구현된 예  
 를 설명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tip - 문단의 마지막, 글의 마지막에서 굳이?  
 이 지문의 경우도 굳이? 싶은 퇴직 연금, 국민 연금 제도가 딱 한  
 줄 제시되고 더 제시되지 않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공신력 있  
 는 기관에서 출제된 지문은 불필요한 내용을 넣지 않습니다. 그러  
 면 굳이 저 내용은 왜 넣었을까요? 당연히 문제화 할라고 넣은 것  
 이죠. 저렇게 음? 하는 부분에서 문제 출제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ex. 수능 18.06 dns 스푸핑 지문

총평

지문을 읽을 때 태도가 독해의 포인트였다고 생각합니다. 비교·대  
 조되는 지문이 나왔을 때 각각을 그냥 읽어 내려가는 것이 아닌,  
 앞 내용을 정리하며 읽고 뒷 내용이 나왔을 때, 그냥 독해를 진행  
 하는 것이 아닌 앞 내용과 '제시된 비교의 기준점'에 맞춰 비교를  
 진행해주며 독해를 진행했다면 상당히 수월하게 지문 독해와 문제  
 풀이가 진행됐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지문 독해 시 포인  
 트를 놓치고 이어서 문제풀이까지 포인트를 못 잡고 진행했을 것입  
 니다.  
 저는 사소한 습관이 모여 향상된 독해력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기출분석을 통해 이런 독해 습관을 내면화하여 의식하지 않아도  
 독해 시 자연스럽게 이 과정이 이뤄지는 수준이 되시기를 응원합  
 니다.

## 1일차 문제 해설

###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정답 ⑤

지문에서 자산 피라미드의 하층부인 현금은 지출이 가장 용이한 상태인 현금이 있다고 제시되었습니다. 지문의 내용과 정반대되는 내용이라 답을 고르는데 크게 무리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머지 선지

① : 첫 문단에서 경제학은 '이상 현상'을 분석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발전되었다고 제시되었습니다.

② : 글의 마지막에서 약간 굳이? 하는 느낌으로 나온 부분이지요? 이 문제를 맞춘 것을 넘어서 이런 느낌의 문장이 선지로 출제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③ : 마지막 문단에서 현재의 지출을 미래로 미루는 행위 곧 저축이라고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추론이나 이해가 필요한 선지가 아닌 그냥 복붙 선지입니다.

④ : 마지막 문단에서 심적 회계가 당장의 유혹을 억누르는 것이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당장의 유혹 = 현재를 중시하는 본능을 억누르는 것이죠. 선지들이 전체적으로 복붙 수준이라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2. ㉠(전통적 경제학)과 ㉡(행동경제학)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③

전통적 경제학의 유동성 제약은 금융 시장이 완전하지 않아 소비 수준이 자신들의 이론의 예측에 비해 낮다고 제시하고, 행동경제학은 전통적 경제학의 유동성 제약을 장기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지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자발적 선택의 결과로 이해합니다. 지문을 읽으며 둘의 저축과 소비에 대한 차이를 인식하고 독해했다면 나머지 선지들도 명확하게 보이고, 답을 고르기 수월하셨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선지

① : 전통적 경제학은 사람들이 최적의 소비 계획을 세우고 불굴의 의지로 실행한다고 가정합니다. 즉 유혹에 취약한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② : 둘을 완전히 바꿔서 설명했죠? 전통적 경제학이 연령대별 소비의 특성을 금융시장의 불완전성이라는 외부적 제약 요인에서 찾고, 행동경제학은 자발적 선택 자발적 선택의 결과물이라고 가정합니다.

④ : 전통적 경제학과 행동경제학 모두 유동성 제약이 심화되면 소비가 자유롭게 행해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전통적 경제학과 행동경제학이 유동성 제약을 보는 관점은 외부적↔자발적으로 다르지만, 둘 모두 유동성 제약이 지출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점은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비교되는 쌍이 나왔을 때 차이점을 파악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차이만 존재하고 공통점이 하나도 없는 것들을 비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차이점을 넘은 공통점까지도 신경쓰는 습관을 갖습니다.

⑤ : 전통적 경제학과 행동경제학 모두 급전 상황에서 신용카드 현금 대출 서비스를 받는 것보다 저축 예금을 인출하는 선택이 바람직한 방법이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만약 이 선지를 고르셨다면 행동경제학이 이를 비합리적 행동이라고 인식한 부분을 놓치셨을 것입니다.

### 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A 국가에서는 1980년대 후반에 세법을 개정하여, 세금 공제 대상을 줄였다. 자동차·카드·주택 등 여러 영역에서 허용되던 공제 대상을 주택 담보 대출로 제한함으로써 주택 소유의 확대를 유도했다. 은행들은 주택가액과 기존 담보 대출액의 차액을 담보로 한 2차 대출 상품을 내놓는 방식으로 이에 대응하였다. 그 결과 다양한 대출 상품들이 생겨나고 주택 가격 거품이 부풀어 오름에 따라 주택을 최후의 보루로 삼던 사회적 규범이 결국 붕괴했고 노인 가구들도 2차 주택 담보 대출을 받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또한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미실현 이익을 향유하며 지출을 늘리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경제의 불안정성은 커졌고 마침내 20여 년 후 금융 위기 사태가 발발했다. 그 결과 가계의 소득 감소와 소비 위축 등으로 경기 침체가 나타났다.

<보기> 분석

세법 개정 → 주택 거품 → 주택을 최후의 보루로 삼던 사회적 규범 붕괴(마음속 신성한 계정인 주택과 같은 자산에 대한 인식 붕괴) → 사회 문제 발생.

<보기>에서 핵심은 지문에서 심적 회계 중 가장 신성한 계정에 속하는 주택과 같은 노후 대비용 자산에 대한 인식 붕괴입니다. 이를 파악하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답 ②

A 국가의 정부는 유동성 제약을 완화하는 심적 회계의 제약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정부 정책과 금융 관행의 변화는 주택에 대한 인식이 현금과 같은 유동성이 있는 자산이라는 인식 변화를 만들었고, 이후 A 국가는 버블 경제 이후 금융 위기가 발발했습니다. 그런데 금융 위기 이후 A 국가가 주택 소유자들에 대해 유동성 제약을 완화하는 심적 회계의 작동 방식을 유도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 지금 이런 경제 위기가 발생한 것이 주택의 인식 대한 유동성 제약을 완화해서 발생한 문제인데 문제의 원인을 유도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주택이 마지막까지 인출이 유보되는 유동성이 낮은 자산이라는 예시를 날려 읽지 않으셨다면 선지를 고르기 수월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선지

① : 지문에서 주택은 마음속 가장 신성한 계정에 놓여있다고 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보기>에서 주택을 최후에 보루로 삼던 사회적 규범이 붕괴되었다고 제시되어있는 것으로 '마음속 가장 신성한 계정'으로서의 성격이 약화되었다는 것을 납득할 수 있습니다.

③ : 독해 시 전용 가능성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전용(全用)으로 이해하고 넘어갔다면 오답을 고를 가능성이 있는 선지입니다. 전용 가능성은 돈에 사용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보기>의 경우도 주택과 같은 자산에도 사용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 것이죠. <보기>에서 A 국가에서 자발적 선택 가능성의 확대 = 주택과 같은 자산도 사용력을 높이는 자발적 선택 가능성의 확대는 결과적으로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 <보기>에서 제시된 것처럼 부동산 거품 현상으로 주택과 같은 자산도 사용력이 높다고 사회적인 규범이 변화했고, 은행들이 2차 대출 상품을 내놓아서 노후 대비용 자산인 주택을 저축이 아닌 소비의 확대 수단으로 바꾸도록 유도하여 A 국가 국민들이 장래를 대비할 여력을 약화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⑤ : <보기>에서 미실현 이익을 향유하며 지출을 늘리는 가구가 늘었다고 제시되었고, 전통적 경제학은 사람의 연령에 따른 소비 패턴은 소득 패턴과 독립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제시되어있습니다. 즉 미실현 이익(소득 상승 미실현)이지만 지출을 늘리는 가구의 증가는 전통적 경제학의 입장인 소비 패턴과 소득 패턴의 독립성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 2일차 지문 해설

심신 문제는 정신과 물질의 관계에 대해 묻는 오래된 철학적 문제이다.

지문이 심신 문제 = 정신과 물질의 관계에 대해 묻는 오래된 철학적 문제임을 시작부터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지문은 아마 철학적인 부분에서 정신과 물질의 관계에 대해 다루는 글이겠죠? '정신과 물질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며 독해를 시작하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독해를 시작합니다.

정신 상태와 물질 상태는 별개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원론**이 오랫동안 널리 받아들여졌으나, 신경 과학이 발달한 현대에는 그 둘은 동일하다는 **동일론**이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바로 정신과 물질의 관계에서 대립되는 두 주장, 이원론과 동일론이 제시됩니다. 정신 상태와 물질 상태는 별개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원론과, 정신 상태와 물질 상태가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동일론. 있는 그대로 이해하기에 무리가 있는 내용은 아니기에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이해가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정신 상태라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그 물질 상태가 다를 수 있고, 인간과 정신 상태는 같지만 물질 상태는 다른 로봇이 등장한다면 **동일론**에서는 그것을 설명할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어떤 입력이 들어올 때 어떤 출력을 내보내느냐는 기능적·인과적 역할로써 정신을 정의하는 **기능론**이 각광을 받게 되었다.

현대에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동일론의 문제점이 제시됩니다. 정신 상태가 같아도 사람마다 물질 상태는 다를 수 있고, 인간과 정신 상태는 같은데 물질 상태가 로봇인 경우는 동일론(정신 상태와 물질 상태는 동일하다.)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동일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능론이 제시됩니다.

기능론에서는 정신이 물질에 의해 구현되므로 그 둘이 별개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이원론**과 다르면서도, 정신의 인과적 역할이 뇌의 신경 세포에서든 로봇의 실리콘 칩에서든 어떤 물질에서도 구현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동일론**의 문제점(정신 상태는 같은데 물질 상태는 다른 경우)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기능론의 정의가 제시되고 바로 정신과 물질을 별개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원론과의 차이점을 제시한 뒤, 정신의 인과적 역할이 어떤 물질에서도 구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일론의 문제점인 정신 상태는 같은데 물질 상태는 다른 경우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제시합니다. 여기서 동일론의 문제점이 정확하게 뭘지 파악하지 않고 그냥 독해를 하셨다면 첫 문제를 풀 때 시간을 허비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독해 시 당겨 읽는 습관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문단에서 추상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제시되었습니다. 여기서 추상적으로 제시되었다는 이유로 이원론, 동일론, 기능론의 개념을 파악하지 않고 내려간다면 이후 독해에 상당한 지장이 생길 것입니다. 추상적일지라도 최소한 각각의 '개념'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내려가야 이후 각각의 개념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때 오독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정신 상태에는 물질 상태와 다른 무엇인가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원론**에서는 '나'가 어떤 주관적인 경험을 할 때 다른 사람에게 그 경험을 보여줄 수는 없지만 나는 분명히 경험하는 그 느낌에 주목한다

바로 앞 문단의 마지막에서 기능론이 동일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하더니 이원론의 얘기가 나와 약간 뜬금 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독해 시 ???뭐지?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것보다는 뒷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독해를 진행합니다.

지문 내용으로 돌아가면 이원론은 주관적인 경험을 할 때 보여줄 수 없지만 분명히 경험하는 느낌에 주목한다고 설명합니다.

잘 익은 토마토를 봤을 때의 빨간색의 느낌, 시디신 자두를 먹었을 때의 신 느낌, 꼬집힐 때의 아픈 느낌이 그런 예이다. 이런 질적이고 주관적인 감각 경험, 곧 현상적인 감각 경험을 철학자들은 '감각질'이라고 부른다. 이 감각질이 뒤집혔다고 가정하는 사고 실험을 통해 기능론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곧바로 '느낌'을 예시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줍니다. 주관적인 감각 경험 = 현상적인 감각 경험 = 감각질이라는 용어가 제시되었습니다. 이렇게 지문에서 용어를 같게 취급하면 글을 읽는 우리도 이 용어들을 같게 취급해줘야 합니다. 문제에서 어떤 용어로 나와도 그것이 같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독해 시 애초에 주관적인 감각 경험 = 현상적인 감각 경험 = 감각질이 같다는 것을 머리 속에 인식하고 독해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감각질이 뒤집혔다는 사고 실험을 통해 기능론에 대한 비판을 제시합니다. 예시가 어렵지 않음으로 '느낌'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 기능론에 대한 비판을 하기 위해 앞서 이원론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는 게 이해되시죠? 이제 감각질이 뒤집혔다고 가정하는 사고 실험으로 기능론을 어떻게 비판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봅시다.

tip - 빌드업

지문을 읽을 때 가끔 음? 왜 이 얘기가 나오지? 하는 지문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글의 논점을 잘못 잡고 있는 등의 오독을 하고 있어 글을 읽다 음? 이런 느낌이 들었을 수도 있지만, 독해를 잘 하고 있다라도 이 지문에서 기능론 얘기 이후 갑자기 이원론이 등장했을 때처럼 갑자기 음? 하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글을 조금 더 읽어보니 뒤에 내용을 얘기하기 위한 빌드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글을 읽으실 때 이때 이런 느낌에 당황하셔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작성한 leet, 수능 등의 지문에 대한 믿음을 가집니다. 앞으로는 독해를 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음? 하는 정보가 나오면 아 뒤에 내용을 위한 빌드업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독해를 진행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빨강으로 보이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초록으로 보이고 나에게 초록으로 보이는 것이 그에게는 빨강으로 보인다는 사고 실험이 그것이다. 다만 각자에게 느껴지는 감각질이 뒤집혀 있을 뿐이고 경험을 할 때 겉으로 드러난 행동과 하는 말은 똑같다.

상당히 추상적이고 난해합니다. 이럴수록 주관을 개입하는 독해가 아닌 지문에 있는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독해를 합니다. 나에게 빨강으로 보이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초록으로, 나에게 초록으로 보이는 것이 그에게는 빨강으로 보이는데 경험을 할 때 겉으로 드러난 행동과 하는 말을 똑같다. 지문의 말처럼 감각질(현상적인 감각 경험)만 뒤집혀 있을 뿐입니다. 주관을 배제하고, 있는 그대로만 담아가며 독해를 이어갑니다.

예컨대 그 사람은 신호등이 있는 건널목에서 똑같이 초록 불일 때 건너고 빨간 불일 때는 멈추며, 초록 불을 보고 똑같이 "초록 불이네."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감각질이 뒤집혀 있는지 전혀 모른다. 감각질은 순전히 사적이며 다른 사람의 감각질과 같은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예시를 통해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해줍니다. 그의 감각질은 빨강과 초록이 뒤집어져 있지만, 내가 빨강으로 보는 것을 그 사람이 초록으로 보고, 그 사람과 나 모두 초록 불과 빨간 불을 봤을 때 하는 행동과 말이 일치합니다. 그런데 감각질=주관적인 감각 경험=현상적이 감각 경험이죠? 이런 사적인 감각질은 타인과의 비교가 불가능하고, 결국

감각질이 뒤집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정도로 독해를 이어갑니다.

그렇다면 나와 어떤 사람의 정신 상태는 현상적으로 다르지만 기능적으로는 같으므로, 현상적 감각 경험은 배제하고 기능적·인과적 역할만으로 정신 상태를 설명하는 기능론은 잘못된 이론이라는 논박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나온 추상적 내용과 예시를 정리하며 기능론을 비판하는 포인트를 제시합니다. 기능론을 비판하는 주장은 정신 상태가 현상적(주관적)으로 다르지만, 기능론은 정신의 인과적 역할이 뇌의 신경 세포에서든 로봇의 실리콘 칩에서든 어떤 물질에서든 구현될 수 있다고 주장한 점으로 현상적 감각 경험은 배제하고 기능적·인과적 역할만으로 정신 상태를 설명하는 기능론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 뒤집힌 감각질 사고 실험에 의한 기능론 논박이 성공하려면 감각질이 뒤집힌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과 색 경험이 현상적으로는 다르지만 기능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조건이 성립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기능론에 대한 비판이 성립하기 위한 전제가 제시됩니다. 감각질이 뒤집힌 사람이 현상적인 경험은 달라도 기능적인 경험은 다르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죠. 맞습니다. 반박의 포인트 자체가 정신 상태가 현상적으로 다르지만 기능적으로 같음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조건이 성립하는지를 이제 글에서 제시해줄 것입니다.

두 경험이 기능적으로 다르지 않다면 두 사람의 색 경험 공간이 대칭적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색들이 가지는 관계들의 구조는 동일한 패턴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의 빨간색 경험과 노란색 경험 사이의 관계를 보여 주는 특성들이 다른 사람의 빨간색 경험(사실은 초록색 경험)과 노란색 경험 사이의 관계를 보여 주는 특성들과 동일해야 한다. 그래야 두 사람이 현상적으로 다른 경험을 하더라도 기능적으로 동일하기에 감각질이 뒤집혔다는 것이 탐지 불가능하다.

두 경험이 기능적으로 다르지 않으려면 색 경험 공간이 대칭적이어야 한다. 즉 색에 관련된 경험과 특성이 동일해야 다른 경험을 하더라도 감각질이 뒤집혔다는 것을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색을 경험한다는 것은 색 외적인 속성들, 예컨대 따뜻함과 생동감 따위와도 복잡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색 경험 공간이 비대칭적이게 된다. ㉡ 빨강-초록의 감각질이 뒤집힌 사람은 익지 않은 초록색 토마토가 빨간색으로 보일 것인데, 이 경우 그가 초록이 가지는 생동감 대신 빨강이 가지는 따뜻함을 지각할 것이기 때문에 감각질이 뒤집히지 않은 사람과 다른 행동을 보일 것이다.

하지만 색을 경험한다는 것은 색 자체만이 아닌 따뜻함 생동감 같은 다른 요인들과도 연결이 되어있고, 그로 인해 경험 공간이 대칭적이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경험 공간이 대칭적이지 않으면 초록이 가지는 생동감 대신 빨강이 가지는 따뜻함을 지각 = 현상적인 감각경험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감각질이 뒤집히지 않은 사람과 다른 행동을 보인다. = 기능적으로 동일하지 않다. 즉 감각질이 뒤집혔어도 경험 공간이 달라 현상적인 감각경험이 다르고 그로 인해 기능적인 부분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기출 분석 과정에서 예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을 때 앞에 제시된 내용을 연결하는 것이 실제 시험장에서 독해 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 평소 예의식적으로 연습하기를 권장합니다.

tip - 구체적인 예시, 그리고 연결  
지문을 읽을 때 수험생들이 간과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leet나 수능같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집필한 지문들은 생각 없이 작성한 글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해줬으면 그렇게 제시

된 이유가 있는 것이고 문제를 위한 글인 지문의 특성상 그 이유는 이해와 문제에 관련된 부분이 많습니다.

이 지문은 상당히 추상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추상적인 내용에 각각의 구체적인 예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문을 독해할 때 추상적인 내용과 예시를 연결해서 읽지 않으면 예시가 주어진 의미가 사라지고, 이는 결국 문제풀이에 악영향을 줄 것이 확실합니다.

이렇게 추상적인 내용이 나왔을 때는 예시를 읽을 때 해당 예시가 뜻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연결된 추상적인 내용과 구체적 예시는 문제화 되어 나올 것이 분명하니까요.

뒤집힌 감각질 사고 실험은 색 경험 공간이 대칭적이어야 성공하지만, 앞에서 제시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런 까닭에 이 사고 실험에 의한 기능론 논박은 성공하지 못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뒤집힌 감각질 사고 실험은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을 제시하며 글이 마무리됩니다. 이때 앞에서 제시한 문제점을 그냥 넘어가지 말고 앞 내용을 통해 색 외적인 요소들로 경험 공간이 비대칭적이고, 그로 인해 현상적인 부분과 기능적인 부분이 다를 것이라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독해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총평

추상적인 지문에 비해 문제는 깔끔하게 풀 수 있는 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한 지문이나 문제가 있지는 않았습니니다. 그래도 역시 추상적인 내용 전개는 우리를 상당히 곤혹스럽게 만들죠. 이 지문을 읽으신 뒤, 이렇게 추상적인 지문이 나올 때 앞말을 당겨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습관인지, 추상적인 내용이 구체적인 예시로 등장했을 때 추상적인 내용과 예시를 연결하는 것이 전체적인 이해와, 독해 속도 그리고 문제풀이 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느끼시고 이후 시험장에서도 이 태도들이 무의식적으로 발현될 정도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 2일차 문제 해설

###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답 ③

기능론은 인간과 정신 상태는 같지만 물질 상태는 다른 로봇이 등장한다면 설명할 수 없는 동일론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지문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즉 기능론에서는 인간과 로봇이 물질 상태가 달라도 정신 상태가 같음을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문 독해 시 동일론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앞부분의 내용을 당겨 읽으셨다면 정답을 고르는데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선지

- ① : 동일론의 주장 자체가 정신 상태와 물질 상태가 동일하다는 내용입니다.
- ② : 이원론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그 경험을 보여줄 수는 없지만 나는 분명히 경험하는 그 느낌에 주목한다고 제시되어었고, 주관적인 감각 경험들을 예로 들고 있죠. 즉 이원론의 주장대로라면 어떤 사람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감각질이 어떠한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 ④ : 뒤집힌 감각질 사고 실험은 기능론으로는 정신의 인과적 측면을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현상적 감각 경험은 배제하고 기능적 인과적 역할만으로 정신 상태를 설명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정신의 인과적 측면을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아니죠. 아마 낚이셨으면 여기서 많이 낚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⑤ : 이원론은 정신 상태와 물질 상태를 별개의 것으로 보기에 정신 상태를 갖는 존재의 물질 상태를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능론은 정신이 물질에 의해 구현되므로 그 둘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즉 정신 상태를 갖는 존재의 물질 상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 2. [비판]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답 ②

뒤집힌 감각질 사고 실험은 색 경험 공간이 대칭적이어야 성공하지만, 앞에서 제시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 비판을 받습니다. 즉 앞에서 제시한 내용이 비판의 내용이 되겠죠. 앞부분에서 색을 경험하는 것은 색 외적인 속성들과도 연관이 되어있기에 색 경험 공간은 '비대칭적'이고, 빨강-초록의 감각질이 뒤집힌 사람은 초록색 토마토를 볼 때 초록이 가지는 생동감 대신, 빨강이 가지는 따뜻함을 느껴(현상적으로 다르고) 감각질이 뒤집히지 않은 사람과 다른 행동을 보일 것(기능적으로 다르고)으로 제시되어있습니다. 즉 색 경험 공간은 비대칭적이고, 감각질이 뒤집힌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현상적으로 다르고 기능적으로 동등한 경우가 발생할 수 없다는 비판은 적절합니다. 이 문제 역시 앞 내용을 당겨 읽었으면 무리 없이 풀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선지

- ① : 색 경험 공간은 대칭적이지 않고 비대칭적이어야 비판이 되겠죠? 색 경험 공간이 대칭적이라면 비판이 아니라 뒤집힌 감각질 사고 실험을 강화해주는 내용입니다.
- ③ : 감각질이 뒤집히지 않았다는 사실을 탐지할 수 없다는 내용은 다른 사람의 감각질과 같은지 확인할 수 없는 방법이 없다는 뒤집힌 감각질 사고 실험의 전제를 강화해주는 내용입니다.
- ④ : 3번 선지와 비슷한 포인트입니다. 감각질이 뒤집혔다는 사실을 탐지할 수 없는 것은 뒤집힌 감각질 사고 실험의 전제를 강화해주는 내용입니다.
- ⑤ : 뒤집힌 감각질 사고 실험이 기능론을 비판할 때 현상적 감각 경험은 배제하고 기능적 인과적 역할만으로 정신상태를 설명하는 것을 비판합니다. 5번 선지 역시도 감각질 사고 실험의 전제를 강화시켜주는 내용입니다.

tip - 문제점, 비판 등의 문제

지문에서 특정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나 비판을 물을 때 그것은 진정으로 우리 뇌에서 100% 탄생한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문제점이나 비판을 시킬 때는 반드시 지문에 문제점에 관련된 내용, 비판에 관련된 내용이 존재하고 우리는 제시된 그 내용에 입각하여 선지를 대하는 것이지 절대로 자신의 의견 100%로 이를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tip - 문제점, 비판 등의 선지 구성

글에서 문제점, 비판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오답을 만드는 방식으로 아예 상관없는 얘기를 하거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닌 주장을 강화하거나 옹호하는 내용을 넣은 경우가 빈번합니다. 대충 읽으면 문제점이나 비판하는 내용이 있어 답 같지만, 오히려 주장을 강화해주는 내용을 섞은 낚시 선지가 정말 많습니다. 이런 선지 구성을 알고 문제점이나 비판 등을 묻는 문제가 나왔을 때 해당 포인트에 주의하며 선지를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3. 윗글과 <보기>를 바탕으로 ㉠과 ㉡을 설명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 뒤집힌 감각질 사고 실험에 의한 기능론 논박
- ㉡ : 빨강-초록 감각질이 뒤집힌 사람

<보 기>

빨강과 초록의 감각질이 뒤집힌 사람이 따뜻한 물로 손을 씻으러 세면대로 갔다. 세면대에는 따뜻한 물이 나오는 쪽지는 빨간색으로, 차가운 물이 나오는 쪽지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었다.

답 ④

㉠이 가능하다는 입장은 감각질이 뒤집혀 있어도, 걸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나 말을 똑같다고 주장하지만, ㉠이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은 경험 공간이 비대칭적이어서 감각질이 뒤집힌 사람은 감각질이 뒤집히지 않은 사람과 다른 행동을 보인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고려하면 ㉠이 실패한다는 입장은 경험 공간이 비대칭적이니 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한다는 것이 맞지만, ㉠이 성공한다는 입장은 감각질이 뒤집혀 있어도 걸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같다고 주장하는, 빨간색 쪽지를 틀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아마 이렇게 세부적으로 따지지 않아도 답을 고르기는 상당히 수월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기출 분석을 할 때는 꼭 정답이 되는 이유를 꼼꼼하게 따지는 과정을 거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선지

- ① : ㉠이 성공한다는 측은 감각질이 뒤집힌 상태니 ㉡이 빨간색 쪽지를 초록색으로 보인다고 설명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 ② : ㉠이 가능하다는 입장은 감각질이 뒤집혀 있어도 걸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나 말을 똑같다고 주장했죠? 그러니 빨간색 쪽지를 보고 빨간색이라고 말한다는 설명은 적합합니다.
- ③ : ㉠이 실패한다는 입장은 경험 공간이 비대칭적이라고 주장하고, 지문의 토마토 예시에서 초록 토마토를 보고 초록이 가지는 생동감 대신 빨강이 가지는 따뜻함을 지각할 것이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보기>의 경우는 ㉠이 실패한다는 입장에서 빨강을 초록으로 인식하는 경우이니 빨강이 가지는 따뜻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설명은 적합합니다.
- ⑤ : ㉠에 대한 두 입장 모두 빨간색 쪽지와 파란색 쪽지를 구분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애초에 감각질이 바뀌어서 빨간색을 초록으로 인식해도 초록과 파란색이기에 두 입장이 이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도 초록과 파랑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 3일차 지문 해설

1990년대 이후 온톨로지(ontology)는 인공지능 연구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연구자들마다 ‘온톨로지’란 용어를 조금씩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지만, 널리 받아들여지는 정의는 “관심 영역 내 공유된 개념화에 대한 형식적이고 명시적인 명세”다.

온톨로지의 정의를 제시하며 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관심 영역 내 공유된 개념화에 대한 형식적이고 명시적인 명세’ 이 한 문장으로 온톨로지에 대해 100% 이해하는 것은 배경지식이 없으면 불가능하고, 그렇게 글을 쓰지는 않았겠죠? 계속 읽어봅시다.

여기서 ‘관심 영역’은 특정 영역 중심적이라는 것을, ‘공유된’은 관련된 사람들의 합의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개념화’는 현실 세계에 대한 모형이라는 것을 뜻한다. 즉 특정 영역의 지식을 모델링하여 구성원들의 지식 공유 및 재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온톨로지인 것이다. 또 ‘형식적’은 기계가 읽고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온톨로지를 표현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 결과로서 얻어지는 ‘명시적인 명세’는 일종의 공학적 구조물로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앞 문장에서 제시된 관심 영역, 개념화, 형식적, 명시적인 명세 각각의 개념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제시됩니다. 여기서 특별한 독해 기술을 써서 멋지게 독해를 한다? 그럴 수 없습니다. 너무 뻘하고 원론적인 얘기지만 각각의 개념어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내려가야 해요. 첫 문단에서 이렇게 개념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했는데 이걸 정리하며 읽지 않고 그냥 빠르게 읽어 내려간다? 이 지문의 경우에는 안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후 독해 시 내용 이해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문단에서 용어에 대한 정의가 제시되면 시간을 조금 써서라도 이를 정확하게 구조화하고 내려갑시다.

온톨로지를 사전과 비교하면 ‘개념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온톨로지의 ‘개념화’라는 것을 사전과 비교하여 설명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개념화’가 무엇인지를 주목하며 독해를 이어가봅시다.

사전에는 각각의 표제어에 대해 뜻풀이, 동의어, 반대어 등 언어적 특성들이 정리되어 있다. 온톨로지에는 표제어 대신 개념이, 그리고 언어적 특성들 대신 개념들 간 논리적 특성들이 기록된다

사전의 특성을 빌어 온톨로지의 개념화를 설명합니다. 사전의 표제어 = 온톨로지의 개념 / 사전의 언어적 특성 = 개념들간 논리적 특성. 즉 개념에 대해 논리적 특성들이 기록된다. 여기까지만 봐서는 앞서 말한 것처럼 잘 정리하며 읽는다. 이 이상의 별다른 말이 필요하지 않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내용들만으로 뒤랑 이어서 뭐 한다. 그건 그냥 사후적인 독해라고 생각합니다.

‘개념(class)’은 어떤 공통된 속성들을 공유하는 ‘개체들(instances)’의 집합이고, 개체는 세상에 존재하는 구체적인 개별자이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지문에서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고, 많이들 놓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온톨로지는 개념에 대해 개념들 간 논리적 특성이 기록된다는 것이 제시되었는데, 이후 온톨로지에 대한 얘기 전 ‘개념’에 정의가 이어집니다. 개념은 공통된 속성들을 공유하는 개체들의 집합이고, 개체는 세상에 존재하는 구체적인 개별자이다. 즉 공통된 속성을 가진 개체의 집합이 개념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지문에서 개념과 개체를 명확하게 구분할 것을 요구했다는 점입니다. 이를 인지하고 독해를 계속 진행합니다.

온톨로지에서는 개념은 관계를 통해 다른 개념들과 연결된다. 필수적인 관계는 개념 간의 계층 구조를 형성하는 상속 관계이다. 상속 관계에서 하위 개념은 상위 개념의 모든 속성을 물려받는다. 예컨대 ‘스누피’라는 특정 개체가 속한 견종 ‘몰티즈’라는 개념은 ‘개’의 하위 개념이므로, ‘몰티즈’는 상위 개념인 ‘개’가 가진 모든

속성을 물려받는다.

온톨로지에서는 개념은 관계를 통해 다른 개념들과 연결된다. 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왜 했는지 감이 오는 문장이 바로 등장합니다. 온톨로지에서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개념’에 대한 빌드업을 해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온톨로지는 개념 간의 계층 구조를 형성하는 상속 관계가 필수적임을 알리고, 상속 관계의 특성인 ‘하위 개념은 상위 개념의 모든 속성을 물려받음.’을 제시합니다. 이어서 상속 관계를 개, 몰티즈, 스누피를 통해 상속 관계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글의 핵심인 온톨로지의 필수적인 부분인 상속 관계의 특성을 예시를 통해서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독해를 이어갑시다.

tip - 빌드업

지문을 읽을 때 가끔 음? 왜 이 얘기가 나오지? 하는 지문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글의 논점을 잘못 잡고 있는 등의 오독을 하고 있어 글을 읽다 음? 이런 느낌이 들었을 수도 있지만, 독해를 잘 하고 있다라도 이 지문에서 온톨로지 얘기만 하다 갑자기 왜 개념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처럼 갑자기 음? 하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글을 조금 더 읽어보니 뒤에 내용을 얘기하기 위한 빌드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글을 읽으실 때 이때 이런 느낌에 당황하셔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독해를 할 때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작성한 leet, 수능 등의 지문에 대한 믿음을 가집시다. 앞으로는 독해를 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음? 하는 정보가 나오면 아 뒤에 내용을 위한 빌드업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독해를 진행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널리 사용되는 또 다른 관계로 부분-전체 관계가 있다. 이외에도 온톨로지에는 관계를 포함한 다양한 논리적 특성들을 기록할 수 있다.

온톨로지의 개념 간의 계층 구조를 형성하는 다른 다양한 관계가 있다.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온톨로지 표현 언어는 대부분 일차 술어 논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쯤 읽었으면 글의 전개방식이 이제 눈에 보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온톨로지의 표현 언어가 일차 술어 논리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 일차 술어 논리가 뭐지? 이제 일차 술어 논리를 정의해주겠네요.

일차 술어 논리는 ‘모든’과 ‘어떤’을 변수와 함께 사용하는 언어로 표현력이 매우 뛰어나다. 예컨대 “진짜 이탈리아 피자는 오직 얇고 바삭한 베이스만을 갖는다.”를 일차 술어 논리로 옮기면 “모든 x에 대해, 만약 x가 진짜 이탈리아 피자라면, 얇고 바삭한 베이스인 어떤 y가 존재하고 x는 y를 베이스로 갖는다.”가 된다.

역시 바로 일차 술어 논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이어집니다. 온톨로지의 일차 술어 논리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기 위한 빌드업이겠죠. 예시가 상당히 직관적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날려 읽지 않는 이상 일차 술어 논리를 이해하는 것에는 큰 무리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드시 장점인 것은 아니다. 일차 술어 논리로 정교하고 복잡하게 표현된 온톨로지를 막상 기계는 효율적으로 다룰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온톨로지 표현 언어는 대부분 일차 술어 논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되어있는데, 정교하고 복잡한 것을 기계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기출 분석을 조금이라도 해보셨다면, 여기서 글의 흐름이 문제가 있어 끝! 이런 식이 아니라 해결책이 나온다는 건 다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온톨로지 표현 언어는 일차 술어 논리에 각종 제약을 두어 표현력을 줄이는 대신 취급을 용이하도록 한 것이 대부분이다.

온톨로지 표현 언어는 일차 술어 논리에 제약을 주어 표현력을 줄이고 취급을 용이하게 함으로 문제를 해결했네요. 크게 어려운 포인트는 아니었습니다.

예컨대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움의 권고안인 ‘웹 온톨로지 언어’ OWL에는 Lite, DL, Full의 세 가지 버전이 있는데, 후자로 갈수록 표현력이 커진다. 즉 OWL DL은 OWL Lite의 확장이고 OWL Full은 OWL DL의 확장이다. OWL DL까지는 계산학적 완전성과 결정 가능성이 보장된다. 이는 OWL DL로 표현된 온톨로지에서는 추론 엔진이 유한한 시간 내에 항상 해를 찾을 수 있음을 뜻한다.

표현력을 줄이는 대신 취급을 용이하게 한 경우의 예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잡고 가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OWL FULL이 표현력이 가장 크다는 것은 직관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시는 표현력을 줄이는 대신 취급을 용이하게 한 경우의 예시이죠? 즉 표현력이 낮은게 취급이 더 용이한 경우의 예시로 OWL DL까지는 계산학적 완전성이 보장된다는 것은 OWL FULL이 아닌 OWL LITE, DL가 계산학적 완전성이 보장된다는 것을 알고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예시는 항상 ‘무엇에 대한 예시인가?’를 인식하고 독해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OWL을 쓰면 복잡하고 다양한 논리적 특성들을 표현할 수 있지만 논리학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OWL은 너무 어렵다. 이로 인해 그 이름과는 달리, 웹에서 OWL이 널리 쓰이는 것은 아직까지 요원해 보인다. 오히려 전문 지식에 대한 정교한 논리적 표현이 요구되는 영역에서는 OWL이 이용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미국 국립암센터에서 개발한 의료 영역 온톨로지인 NCI 시소러스는 OWL 포맷으로도 제공되는데, 이것은 약 4만 개의 개념과 백 개 이상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외에도 의료 영역은 일찍부터 여러 그룹에서 각기 목적에 맞는 온톨로지를 발전시켜 왔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UMLS, SNOMED-CT 등이 있다.

OWL의 장단점이 제시된 후, 전문 지식에서 OWL이 이용되고 있다고 제시하며 그에 맞는 예시가 또 제시됩니다. 앞의 개념을 당겨서 읽을 필요도 없고 그냥 OWL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예시를 통해 정확하게 인식 하면 됩니다. 여기서 마지막 두 문장과 같은 없어도 되는데 굳이? 라는 이런 정보가 선지로 잘 구성된다는 점은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tip - 문단의 마지막, 글의 마지막에서 굳이?

이 지문의 경우도 굳이? 싶은 의료 영역은 일찍부터 여러 그룹에서 각기 맞는 온톨로지를 발전시켰고 그 예시를 말합니다. 솔직히 없어도 지문에 별 이상 없거든요. 그런데 계속 말씀드렸지만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출제한 지문은 불필요한 내용을 넣지 않습니다. 그러면 굳이 저 내용은 왜 넣었을까요? 당연히 문제화 할라고 넣은 것이죠. 저렇게 음? 하는 부분에서 문제 출제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ex. 수능 18.06 dns 스푸핑 지문

온톨로지는 일반적으로 특정 영역 종사자들의 관심과 필요에 의해 구축되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1984년 개발이 시작된 Cyc는 인간의 모든 지식을 담고자 하는 대규모 온톨로지다. 지식공학자 소와(Sowa)는 철학의 연구 성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상위 수준 온톨로지를 제시한 바 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분류하려면 시간, 공간과 같은 일반적인 개념들을 다루어야만 하는데,

이는 철학자들이 이런 개념들에 대해 가장 오랫동안 깊이 사유했기 때문이다.

앞서 전문 지식, 의사들의 온톨로지 활용이 제시되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하며 철학의 연구성과를 활용한 상위 수준의 온톨로지 Cyc에 대한 설명으로 글을 마무리합니다.

### 3일차 문제 해설

1. **온톨로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④

온톨로지에서 개념은 그 개념에 속한 개체가 상속 관계에 의해 연결되는 것이 아닌 개념과 다른 개념들의 연결입니다. 설명하기는 그냥 지문에 복붙 수준인데, 상당히 오답률이 높은 문항입니다. 아마도 개념과 개체라는 용어의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멍뚱그려 읽으셨다면 이 선지를 많이 틀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념어(용어)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선지

- ① : 온톨로지는 특정 영역의 지식을 모델링하여 구성원들의 지식 공유 및 재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제시되어 있으니, 지식의 공유와 재사용을 위해 설계된 인공물이라는 표현은 적절합니다.
- ② : 온톨로지는 관심 영역 내 공유된 개념화에 대한 형식적이고 명시적인 명세로, 개념구조를 명시적으로 드러내고자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③ : 온톨로지는 관심 영역 내 공유된 개념화에 대한 형식적이고 명시적인 명세이고, 여기서 형식적은 기계가 읽고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온톨로지를 표현해야 한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 ⑤ : 의료 영역의 예에서 각기 목적에 맞는 온톨로지를 발전시켜 왔다고 제시되어 있죠? 동일한 영역(의료 영역)에서도 종사자들의 관심과 필요(각기 목적)에 맞는 온톨로지를 구축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 온톨로지 표현 언어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답 ③

- ㄱ. 동일한 온톨로지를 서로 다른 두 개의 언어로 각각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들 언어의 표현력이 동등해야 한다.

동일한 온톨로지를 서로 다른 두 개의 언어로 각각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들 언어의 표현력이 꼭 동등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예시로 나온 웹 온톨로지 언어인 OWL의 경우도 3종류의 표현력이 다 다른 것으로 제시되어 있기에 꼭 표현력이 동등해야 할 이유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 ㄴ. 일차 술어 논리 표현 “모든 x에 대해, x가 빵이면 x는 장미이다.”는 ‘빵’이 상위 개념, ‘장미’가 하위 개념인 상속 관계를 나타낸다.

모든 x가 빵이면 x는 장미이다는 장미가 상위 개념이고 빵이 상위 개념인 상속 관계입니다. 만약 빵이 상위 개념이고 장미가 하위 개념이면 모든 x에 대해 x가 빵일 때 x가 장미라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 ㄷ. 계산학적 완전성에 대한 보장 없이 최대의 표현력을 활용하여 온톨로지 구축을 원하는 사용자는 OWL Lite보다는 OWL Full을 사용할 것이다.

지문에서 표현력은 OWL Lite<DL<Full 순으로 크고, OWL Lite와 DL까지만 계산학적 완전성이 보장된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즉 최대의 표현력만을 활용하여 온톨로지 구축을 원하면 OWL Full을 사용한다는 추측은 타당합니다.

3. 윗글과 <보기>를 바탕으로 소와의 상위 수준 온톨로지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T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집합. ⊂ 공집합

답 ②

T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집합 이를 지문의 말로 표현하면 개념이 어떤 공통된 속성들을 공유하는 개체들의 집합이기에 T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는 공집합이라고 제시되어 있는데, 지문에서 상속 관계와 <보기>의 상속관계의 추이성을 고려해보면 ⊂는 최하위 개념으로 상위 개념들이 가진 모든 속성을 물려받습니다.

즉 T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집합은 맞지만, 이 개념은 ‘모든 속성’을 다 가지는 것이 아닌 모든 것들이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은 상위 개념들이 가진 모든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나머지 선지

①

③ : 이 둘의 공통 하위개념은 ⊂밖에 없습니다. 즉 이 둘의 속성을 모두 갖는 것은 공집합인 ⊂ 밖에 없는 것임으로 이 둘의 속성을 모두 갖는 개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적절합니다.

④ : Object는 Actuality와 Continuant의 하위 개념이 맞습니다. 그렇기에 <보기>에서 제시된 추이성과 상속 관계에서 하위 개념이 상위 개념의 모든 속성을 물려 받는다는 것을 통해 Actuality의 속성과 Continuant의 속성을 모두 물려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⑤ : ‘Process’는 ‘Actuality’의 하위 개념이고 ‘Actuality’는 ‘Physical’의 하위 개념이 맞습니다. 그리고 <보기>에 의거해 상속 관계는 추이성을 가지는 것이 맞으므로 ‘Process’는 ‘Physical’의 하위 개념이 맞습니다.

아마 4, 5번 선지는 무난하게 푸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tip - 배경지식의 편견

아마도 2번 선지를 적절하다고 판단하신 많은 분들이 공집합이라는 것에 어떠한 속성도 갖지 않는다는 것을 옳다고 판단하셨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leet, 수능 등의 시험에서 배경지식이 있을 때 유리한 부분이 많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배경지식이 지문을 넘어서 판단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태도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도 공집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최하위 개념인 ⊂가 상위 개념의 모든 속성을 물려받았다는 것을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풀 때 근거로 사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배경지식이 많은 것은 당연히 좋은 부분이지만, 배경지식이 지문을 넘어서는 과정은 앞으로 꼭 지양하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지문을 우선한 독해를 지향합시다.

총평

분명 지문 풀기 전에 보인 <보기>보고 쫓아서 독해를 했는데, 초반이 살짝 빠빠하지만 읽다보니 괜찮고, 그래서 지문 꽤 잘 읽혔다고 생각했는데 첫 번째 문제부터 막히고, 정답 체크를 해보면 이게 왜 답이야? 싶은 지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지문은 지문 전체의 완성도보다 용어에 대한 민감함, 배경지식의 개입 이 두 가지를 돌아보기에 매우 좋은 지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용어에 대한 민감함이 없었으면 첫 번째 문제의 답을 고르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고, 문제 풀이 시 지문을 벗어난 ‘주관적 배경지식’이 개입되었다면 <보기>문제도 답을 고르기 상당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문에서 첫 문제, <보기>문제 각각에서 용어에 대한 민감함, ‘주관적 배경지식의 위험함’을 알고 이후 독해에도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4일차 지문 해설

최근 프랑스 극우민족주의 세력인 국민연합은 과거의 인종주의적 경향에서 탈피하여 프랑스 공화주의의 수호자로 자처하기 시작했다.

지문이 프랑스 극우민족주의 세력 = 국민연합에 대한 얘기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로 국민연합이 프랑스 공화주의의 수호자로 자처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하는 것일까요? 이를 신경쓰며 독해를 진행해봅시다.

**국민연합은 공화주의의 핵심적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라이시테', 즉 정치와 종교의 엄격한 분리라는 세속화를 새롭게 강조하고 있다.**

국민연합이 프랑스 공화주의의 수호자로 자처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한 이유에 대한 얘기가 시작됩니다. 이 부분을 읽을 때 '공화주의의 핵심적 원칙인 라이시테 = 정치와 종교의 엄격한 분리'라는 범주화가 이루어지며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가끔씩 독해를 진행할 때 개념어만 신경쓰고 그 개념어에 대한 수식(관형절 등)을 간과하는 독해습관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라이시테'라는 개념어가 중요한 것은 맞지만, '라이시테'가 공화주의의 핵심적인 원칙이라는 것을 당겨읽지 않고 껍데기만 가져간 독해는 이후 독해 시 지문에 대한 이해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후 선지 판단에서도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개념어에 대한 관형절이 있을 때 그를 당겨 읽어 하나의 덩어리로 챙겨가는 습관을 항상 견지하시길 바랍니다.

tip - 다른 말 같은 뜻

독해 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같은 뜻으로 인지하지 않고 파편적으로 독해할 시 파편적인 독해, 흔히 말하는 날림 독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것이 같은 범주라는 것을 인식해야 이어지는 지문 독해 시 느끼는 부담이 줄고, 문제풀이 시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의 경우 공화주의의 핵심적 원칙 = 라이시테 = 정치와 종교의 엄격한 분리 선지에서 셋 중 어떤 표현으로 나와도 이것이 같은 의미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상태로 독해가 진행됐어야 합니다.

이렇게 한 문장에서 같은 의미를 같은 범주로 잡아가며 읽는 것에서, 다른 문장에서 앞 문장과 같은 의미를 잡아주거나, 더 나아가 다른 문단에서 앞 내용과 같은 의미를 같은 범주로 잡아가며 독해하며 글을 이해하는 것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1905년 법률로 확정된 라이시테 원칙은 당시 보수적 가톨릭이 정치 및 교육에 개입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해 제시된 것이다. 그런데 최근 프랑스 사회에서는 이 원칙(정치와 종교의 엄격한 분리=라이시테)에 의거하여 공공장소에서 종교적 표지를 드러내는 것을 금지하여 결과적으로 무슬림에 대한 억압이 이루어지고 있다

당시 보수적 가톨릭의 정치 및 교육의 개입을 막기 위해 사용된 라이시테 원칙이 현재 무슬림에 대한 억압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시민권 획득에서 프랑스어 및 프랑스 법과 가치에 대한 의무가 강조됨으로써 통합을 위한 국가의 역할보다는 통합되는 자의 책임과 의지가 중시되기 시작했다.

무슬림에 대한 억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과 더불어 통합의 과정에서 국가보다는 앞선 무슬림을 예로 들 수 있는 통합되는자들의 역할이 중시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과도한 개념어, 비교-대조쌍이 등장하지 않기에 프랑스 극우민족주의 세력인 국민연합이 왜 공화주의에 수호자로 불리는가에 대한 핵심을 잊지 않고 독해를 계속 진행하시면 됩니다.

원래 국민국가 시기에 인민은 동일성에 기반한 '네이션(nation)',

즉 '민족/국민'이라는 틀을 통해 권리를 부여받으면서 민주주의적 주체로서 구성되었다

음? 왜 갑자기 국민국가 시기 인민 얘기가 나오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빌드업 구간입니다. 핵심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구간이죠. 당황하지 않고 이후의 내용 이해에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독해를 진행합니다.

내용으로 돌아와서 국민국가 시기의 인민은 '동일성에 기반한 네이션=민족/국민'으로 민주주의적 주체로 구성되었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후 네이션이란 개념어가 나왔을 때 '네이션'으로만 읽는 것이 아닌 '민족/국민 민주주의적 주체= 네이션'으로 읽으면 지문 이해가 더 수월하겠죠? 앞서 무슬림을 억압한 것이랑은 느낌이 살짝 다르죠? 독해를 계속 진행해봅시다.

**네이션의 동일성은 문화적 기반을 강조하는 폐쇄적 '민족' 개념과 정치적 원칙에 대한 동의만을 조건으로 하는 개방적 '국민' 개념으로 구분되어 형성되어 왔다.**

여기서 다시 동일성에 기반한 네이션의 개념을 구분하여 제시합니다. 여기서도 폐쇄적 민족 개념 ↔ 개방적 국민 개념 이정도만 이해하고 가면 안되겠죠? 관형절까지 묶어 문화적 기반 강조 폐쇄적 민족 개념 ↔ 정치적 원칙에 대한 동의만이 조건인 개방적 국민 개념으로 통으로 묶어 구분하고 넘어갑시다.

후자가 전자보다 공화주의적 논리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최근의 극우민족주의에서 제시하는 네이션은 문화적 개념과 시민적 개념 사이의 차이를 없애고 경계를 갖는 포섭과 배제의 논리로만 작동하고 있다.

역시 네이션이라는 개념을 제시한 이유는 최근의 극우민족주의에서 제시하는 네이션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제시하는 네이션은 문화적 개념(폐쇄적 민족 개념)과 시민적 개념(개방적 국민 개념)에 대한 차이를 없애고 경계를 갖는 포섭과 배제의 논리로만 작동하고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문화적 개념과 시민적 개념이 앞에서 뭐랑 같은 뜻인지는 잡고 독해를 진행해야 내용 이해와 이후 문제 풀이에 지장이 없겠죠?

이렇게 같은 뜻을 확보했다면 네이션을 어떻게 포섭과 배제의 논리로만 작동시키고 있는지 초점을 맞춰 독해를 진행해봅시다.

**극우민족주의는 네이션을 새로운 상징, 가치 등을 중심으로 재구성하면서 네이션에 대한 호명을 시도한다.**

극우 민족주의가 네이션을 새로운 상징, 가치 등으로 구성해서 네이션에 대한 호명을 시도하며 네이션을 포섭과 배제의 논리로 작동시키고 있네요. 여기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이션의 구성에서 극우민족주의자들은 과거처럼 종교, 문화 등의 기준을 통한 적극적 방식이 아니라 소극적 방식, 즉 이러저러한 것은 네이션의 특성이 될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네이션의 구성원이 아니라는 방식으로 네이션을 재구성한다. 그들에게 네이션은 존재하지 않는 '망령'일 뿐이다.

앞서 극우민족주의자들이 네이션을 재구성한다 한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과거와는 다른 소극적 방식으로 네이션을 재구성하여 네이션을 존재하지 않는 망령으로 만들었네요. 민족/국민 민주주의적 주체를 망령으로 만들었다는 말이겠네요. 즉 극우민족주의에서 포섭과 배제의 논리로 네이션을 작동한다고 평가한 것은 극우민족주의자들이 민주주의적 주체를 망령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마 실전에서 문제 풀이 시는 몰라도 지문 독해 시에 이 정도의 이해와 판단까지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해설에서 실전에서 쓰기 힘든 부분은 최대한 지양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초점을 맞추며 독해를 하고 그를 정리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넣어봤습니다.

또한 그렇게 구성된 네이션(소극적 방식으로 구현된 존재하지 않는

망령인 네이션)은 시민들의 집합체, 연대와 삶의 공동체로서 국민 국가의 주권자라는 위상을 잃고, 정치적 주체로서보다는 치안과 통치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앞서 민주주의적 주체가 망령이 된 네이션이라는 의미를 당겨 읽었으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정치적 주체로서 보다는 치안과 통치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제시한 것으로 대놓고 ~보다는 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치안과 통치의 대상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네요. 이렇게 글에서 대놓고 치안과 통치의 대상으로 전락했음을 강조하니 우리도 당겨 읽은 내용에 치안과 통치의 대상으로 전락했다는 정보를 같이 가지고 독해를 이어갑시다.

오늘날 국가는 시장이 야기한 삶의 불확실성과 불안에 대한 개입을 중단하고, 비경제적 유형의 개인 안전에 대한 책임을 수행함으로써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결국 정치(politics)는 사라지고 치안(police)만이 남는다.

앞서 네이션이 정치적 주체로서보다는 치안과 통치의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제시한 것을 다시 재진술하고 있네요. 정치(시장이 야기한 삶의 불확실성과 같은)것에 대한 개입을 중단하고 치안(비경제적 유형의 개인 안전에 대한 책임 수행)만이 남았다고 범주화를 하며 독해를 하셨으면 의미 판단이 더욱 수월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민국가 수준에서 '사회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 밑바탕이 되었던 공화주의와 케인즈주의의 사회적 국민국가는 후퇴하고, 이민 노동자 등 잉여 노동력의 공급을 통한 노동 유연성 확대와 그 관리를 위한 방편으로 사회적 배제의 정치 전략이 작동한다. 즉 극우민족주의는 신자유주의와의 동거를 통하여 국민/비국민 혹은 시민/비시민의 구분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극우민족주의자들은 신자유주의적 세계에 '잉여'로서 존재하는 이민 노동자나 '위험한 외국인'을 통합 불가능한 자들로 여겨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다.

극우민족주의자들이 사회적 배제의 정치 전략을 시민/비시민의 구분으로 사용하고 여기서 비시민은 잉여로 존재하는 이민 노동자나 위험한 외국인을 지칭하여 이들을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게 독해에 지장이 있는 부분은 아니고, 아마 다들 자연스럽게 납득하신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자유주의 속에서 유색 인종 노동자들은 사회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 범죄자이자 위험한 계급으로서 국가 권력이 수행하는 '안전의 정치'의 대상으로 확정된다. 안전의 위협이라는 비상 상황이 일상적인 것이라고 강조되면서 '위험한 계급'으로서 이주 노동자에 대한 권력의 예외적인 행사 역시 일상화된다.

시민 / 비시민의 구분 전략을 통해 이주 노동자들을 비시민으로 분리했고, 그 비시민들을 위험한 계급으로 지칭하여 안전의 위협이 일상적으로 취급시킵니다. 이게 앞서 말한 치안만이 남는 것이겠죠? 정치는 사라지고 치안만 남는다는 내용 이후 서술된 부분이 모두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범주의 애기임을 인식하고 독해를 진행해야 정보량이 과다하다 느끼지 않고 글의 핵심을 파악하며 읽을 수 있습니다.

물론 말이 쉽지 인생을 건 실전에서 같은 범주를 파악하며 읽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120, 130 정도로 범주 파악하며 읽는 연습을 진행해야 시험장에서 간신히 80 정도는 파악하고 읽을 수 있습니다. 진부하고 당연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_^;;

극우민족주의는 기존 좌우 정당의 틀을 넘어서 특정 집단을 공동의 적으로 만들면서 세력화를 추구한다. 극우민족주의 정당에 대한 지지 세력의 30~40%가 과거 좌파 정당을 지지했던 노동자 계급이라는 사실에서도 그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특정 집단은? 지문의 내용에 입각하면 아마도 이주 노동자 등과 같은 집단이겠죠? '위험한 계급'(이주 노동자 등)을 적으로 만들어

세력을 만든 결과로 좌파 정당을 지지하던 노동자들의 흡수가 제시되어 있네요. 앞선 내용의 재진술의 느낌을 파악했다면 예시 정도만 챙긴 뒤 독해를 계속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또한 극우민족주의는 포퓰리즘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포퓰리즘의 출발이 근대 대의제의 거부와 인민의 직접적 정치 실천에 대한 욕망의 발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극우민족주의자들은 여전히 근대 대의제 정치가 '상징적'으로 전제하는 대표되는 자의 단일성을 위해 내부의 타자(이주 노동자, 특정 집단 등)를 부정하고 있다.

극우민족주의는 포퓰리즘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지만, 그들은 대표되는 자의 단일성을 위해 내부의 타자를 부정한다. 이것도 결국 앞서 말한 시민/비시민 구분전략에 대한 재진술이죠? 앞부분을 잘 읽었다면 자연스럽게 이해될 부분입니다.

하지만 국가가 구성하는 주권적 인민의 배치 안에는 국민과 같은 형태의 공식적 인민으로 실존하지 않는 많은 인민이 존재한다. 두 차례 세계 대전 전후에 등장했던 전체주의적 권력은 단일성을 위한 상징적 권력(상징적으로 전제하는 대표되는 자의 단일성)과 사회적, 계급적 분할에 의해 단일화될 수 없는 실재적 권력을 동일시함으로써 인류 역사에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예시에서는 전체주의적 권력이 단일성을 위한 상징적 권력과 사회적 계급적 분할에 의해 단일화될 수 없는 실재적 권력을 동일시해서 불행한 결과를 초래했다. 즉 극우민족주의자들이 단일성을 위해 내부의 타자를 부정한 것 또한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비판이겠죠. 극우민족주의가 대표되는 자의 단일성을 위해 내부의 타자를 부정하는 것을 비판하고, 그에 맞는 예시를 들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이 앞선 내용의 재진술과 비판으로 아마 지문 잘 읽은 사람과 잘 못 읽은 사람의 내용 이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 총평

이 지문은 뭐 과도한 정보량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비교 대조가 밀도 있게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 인물이나 관점이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지문을 독해할 때 어려움을 느끼셨다면, 아마도 제가 이 지문에서 계속 강조한 관형절을 간과한 독해 습관을 가지셨거나, 다른 말 같은 뜻을 잘 파악하지 못해 정보량이 많고 글이 파편적이라고 느끼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이 지문은 다른 말, 같은 뜻, 관형절 당겨 읽기를 제외하면 크게 강조할 포인트가 없습니다. 글에서 제시된 관점도 하나밖에 없으니 그 하나의 핵심에 맞게 독해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렇지만 글의 구조를 잘 파악하는 것, 글의 핵심을 잘 파악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문장도 제대로 못 읽고 의미 파악도 제대로 안 되는데 구조를 잡아봐야 뭐하고 핵심을 어떻게 잡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당겨 읽기, 다른 말 같은 뜻이 가장 기본적인 독해 습관이고 이게 받쳐줄 때 다른 독해 태도가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문에서 어려움을 느끼셨다면 절차탁마하여 기본적인 당겨 읽기, 다른 말 같은 뜻부터 습관화합시다.

## 4일차 문제 해설

###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답 ⑤

신자유주의 시대에 네이션은 주권자로서의 위상이 확대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최근 극우민족주의의 제시대로 구성된 네이션은 국민국가의 주권자라는 위상을 잃고 정치적 주체로서보다는 치안과 통치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음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보다는 이라는 표현과 극우민족주의의 핵심을 잡고 글을 읽었다면 무난하게 답을 고를 수 있었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선지

① : 최근 프랑스 사회는 이 원칙(공화주의의 핵심적인 원칙)에 의거하여 결과적으로 무슬림에 대한 억압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당겨 읽기가 습관화 되어있다면 무난하게 풀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② : 시민권 획득에서 통합을 위한 국가의 역할보다는 통합되는 자의 책임과 의지가 강조되고 있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냥 복붙 수준이네요.

③ : 극우민족주의가 특정 집단을 공동의 적으로 만들어 세력을 확장하는 예시로 극우민족주의 정당에 대한 지지 세력이 30~40%가 과거 좌파 정당을 지지했던 노동자 계급이라는 부분의 복붙 수준입니다.

④ : 국민국가 시기에 문화적 기반을 강조하는 폐쇄적 민족 개념과 정치적 원칙에 대한 동의만을 조건으로 하는 개방적 국민 개념이라고 제시되어 있죠? 개념어만 챙긴 것이 아닌 관형절까지 덩어리로 챙기셨다면 정치적 원칙에 대한 동의만을 조건으로 하는 개방적 국민 개념을 인식하고 있었기에 무리 없이 답을 고르실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2. 윗글을 바탕으로 **최근의 극우민족주의**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답 ④

신자유주의 속에서 유색 인종 노동자들은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되어 있고, 극우민족주의자는 이런 특정 집단을 공동의 적으로 만들어서 안전의 위협이라는 비상 상황이 일상적인 것이라고 강조되면서 위험한 계급으로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권력의 예외적인 행사 역시 일상화된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선지

① : 문화적 민족 개념과 시민적 국민 개념의 차이를 없앤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극우민족주의는 국민/비국민, 시민/비시민으로 구분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에서 국민적 동일성에 기반한 정치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② : 극우민족주의자들의 네이션은 시민들의 집합체, 연대와 삶의 공동체로서 국민국가의 주권자라는 위상을 잃었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연대의 공동체로서 국민국가의 위상을 강조했다는 것은 지분 내용과 정반대네요.

③ : 극우민족주의자들은 여전히 근대 대의제 정치가 상징적으로 전제하는 대표되는 자의 단일성을 위해 내부의 타자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즉 네이션을 재구성하여 근대의 대의제 정치를 폐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⑤ : 최근의 극우주의는 시장이 야기한 삶의 불확실성과 불안에 대한 개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즉 사회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의 경제적 삶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실종된 정치를 회복한다며 안전의 정치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을 평가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근대 정치에 대해 문제 제기하면서 인민을 정치의 전면에 등장시킨 포퓰리즘은 대중 영합적 정치로의 변질 가능성뿐만 아니라 ㉠ 민주주의적 정치의 확장 가능성도 지닌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새롭게 출현하는 '사회적인 것', 예를 들어 비정규직 노동자, 불법 체류자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편협한 동일성의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 정치에 대한 새로운 사유와 실천이 필요하다. 국민국가라는 경계를 가로질러 새로운 민주주의를 실천할 주체를 모색하고 민주주의를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포퓰리즘은 편협한 국가주의 이념을 극복하고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새로운 공동체와 국제적 연대를 이끌어 낼 가능성을 함축하고 있다.

<보기>분석

지문에서는 극우민족주의가 포퓰리즘의 한 유형이라고 봤는데 <보기>에서는 그와는 대비되게 ㉠은 포퓰리즘이 민주주의적 정치의 확장 가능성을 지닌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즉 포퓰리즘이 극우민족주의를 극복하고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새로운 공동체와 국제적 연대를 이끌어 낼 가능성이 있다고 보네요. 포퓰리즘의 민주주의적 정치의 확장 가능성이 ㉠에 대한 평가임을 인식하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답 ⑤

비정규직, 난민, 이주 노동자 등에 의해 생겨난 '사회적인 것'의 해결을 위해 <보기>에서는 새로운 민주주의를 실천할 주체를 모색하고 민주주의를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편협한 국가주의 이념을 극복하여 새로운 공동체와 국제적 연대를 이끌어 낼 가능성을 함축하고 있다고 제시합니다.

이는 선지의 사회적 국민국가 방식의 해결을 넘어서 민주주의적 실천을 모색한다면(새로운 민주주의를 실천할 주체를 모색), 경계 구분을 통한 배제의 정치를 극복(편협한 국가주의 이념을 극복)하고 새로운 공동체와 세계 질서가 도래(새로운 공동체와 국제적 연대를 이끌어낼 가능성)할 수 있는 평가를 끌어내기에 적합합니다.

솔직히 <보기>에서 제공된 정보가 너무 친절해서 5번까지 읽으셨다면 답을 고르기에 무리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머지 선지

① : 대중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치안의 정치의 실현은 극우민족주의의 극복과는 거리가 멉니다.

② : 전체주의적 권력은 대표되는 자의 단일성을 위해 내부의 타자를 부정하는 것에 대한 예시로 제시되었었습니다. 즉 이주민을 포용하는 정치를 해서 전체주의가 등장할 위험이 있다는 것은 지문의 내용과 상반됩니다.

③ : 단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징적 권력과 단일화될 수 없는 실재적 권력을 동일시 한 것이 특정 집단을 배제한 전체주의적 권력입니다. 즉 대중이 정치체의 단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징적 권력과 단일화될 수 없는 실재적 권력을 구별할 때 동일화될 수 없는 인민을 배제한다고 보는 것은 지문의 내용과 상반됩니다.

④ : <보기>는 포퓰리즘이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새로운 공동체와 국제적 연대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다고 제시합니다. 그런데 공화주의의 정치적 원칙을 기반으로 네이션을 적극적으로 구성하여 사회적 국민국가의 민주주의 정치를 위한 주체로 삼아 신자유주의로 인해 훼손된 국민국가의 이념과 민주주의 가치의 복원은 과거로의 회귀입니다. 즉 새로운 공동체를 얘기한 <보기>의 얘기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 5일차 지문 해설

프랑스 혁명 이후에는 법관의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없애기 위하여 법률을 명확히 기술하여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았다.

글의 논점이 보이네요. 법관의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법률의 명확한 기술. 이 논점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의식하며 독해를 진행합니다.

이러한(법관의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법률을 명확히 기술하여야 한다는) 근대법의 기획에서 법은 그 적용을 받는 국민 개개인이 이해할 수 있게끔 제정되어야 한다. 법이 정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국민이 이해할 수 있어야 법을 통한 행위의 지도와 평가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글의 논점 = 근대법의 기획임을 당겨 읽었어야 합니다.

즉 근대법의 기획으로 따르면 법관의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없애기 위한 명확한 기술 + 국민 개개인이 이해할 수 있는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 정리를 하고 독해를 이어갔어야 했습니다. 글의 핵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리를 하지 않고 그냥 달려 읽으면 좋은 독해를 하기는 힘들겠죠.

이에 따라 형사법 분야에서는 형벌 법규의 내용을 사전에 명확히 정해야 하고, 법문이 의미하는 한계를 넘어선 해석을 금지한다.

글의 논점에 대해 형사법 분야의 예를 구체적으로 들며 설명하고 있는데요. 앞선 내용의 재진술 같은 느낌이라 앞 내용을 정리하고 넘어오셨다면 이 부분은 무리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치국가라는 헌법 이념에서도 자의적인 법 집행을 막기 위하여 ① 법률의 내용은 명확해야 한다는 원리가 정립되었다. 여기서 법률의 내용이 명확해야 한다는 것은 법문이 절대적으로 명확한 상태여야만 한다는 것까지 뜻하지는 않는다. 입법 당시에는 미처 예상치 못했던 사태가 언제든지 생길 수 있을 뿐 아니라,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라도 법률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형식을 띠 수밖에 없는 탓이다. 따라서 법률의 명확성이란 일정한 해석의 필요성을 배제하지 않는 개념이다.

형사법 분야 이후, 법치국가라는 헌법 이념을 통해 앞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앞선 내용에 대한 재진술을 넘어 명확성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제시되죠? 법률의 내용의 명확성 = 절대적 명확성 x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태로 인해 법률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부분을 배제할 수 없고, 해석의 필요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독해 시 앞선 내용에서 글의 논점은 법률의 자의적 해석 배제를 위한 명확한 기술을 강조했지만, 그것이 100% 실현될 수는 없다는 정리가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해석을 통하여 법문의 의미를 구체화할 때에는 입법자의 의사나 법률 그 자체의 객관적 목적까지 참조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 방법(입법자의 의사나 법률 그 자체의 객관적 목적을 참조하는 방법)은 언뜻 타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문단에서는 해석의 필요성을 배제할 수 없다(=해석의 타당성)를 말하지만 이에 대한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2문단이 제시됩니다. 글의 논점에 대한 비판으로 글이 이어지겠네요. '비판의 이유'에 초점을 맞추며 독해를 진행합니다.

우선 입법자의 의사나 법률 그 자체의 객관적 목적이 과연 무엇인지를 확정하는 작업부터 기록하지 않을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그것까지(입법자의 의사 법률 그 자체의 객관적 목적) 고려해서 법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파악할 것을 법의 전문가가 아닌 어느 국민에게 기대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근대법의 기획은 자의적 해석의 방지를 위한 법률의 명확한 기술 + 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 개개인이 이해할 수 있는 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입법자의 의사나 법률 그 자체의 객관적 목적을 참조하는 해석 방법은 객관적 목적의 확정이 어려움 + 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 개개인이 법을 이해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이 부분을 읽을 때 이렇게 앞서 글의 핵심인 근대법의 기획에 대한 내용을 당겨와서 그에 대한 비판 포인트를 잡고 읽어야지 그냥 파편적으로 이 부분만을 독해하는 것은 좋은 독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항상 비판이 나오면 '비판의 대상과 비판점, 비판의 이유'를 연결시키는 독해를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법률의 명확성이 말하고 있는 바는 법문의 의미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국민의 이해 수준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지, 구체화한 만큼 실제로 국민이 이해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나아가 입법자의 의사나 법률 그 자체의 객관적 목적을 고려한 해석은 법문의 의미를 구체화하는 데 머물지 않고 종종 법문의 한계를 넘어서는 방편으로 활용되며 남용의 위험에 놓이기도 한다.

비판점을 제시한 후 그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의적 해석의 방지를 위한 법률의 명확한 기술+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 개개인이 이해할 수 있는 제정이 지향점이지만, 법을 구체화 한만큼 실제로는 국민 개개인이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입법자의 의사나 객관적 목적을 고려할 때 오히려 해석의 남용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한편 법의 적용을 위한 해석을 이미 주어져 있는 대상에 대한 인식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여기는 시각이 아니라, 법문의 의미를 구성해 내는 활동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법의 적용을 법문의 의미를 구성하는 활동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면 어떤 문제를 제기할까요? 앞 내용을 읽을 때와 독해 태도는 같습니다. 글의 핵심인 근대법의 기획에 대한 내용을 당겨와서 '비판의 대상과 비판점, 비판의 이유'를 연결시키는 독해를 하면 되겠네요. 이 태도로 독해를 계속 진행해보시다.

입법자가 법률을 제정할 때 그 규율 내용이 불분명하여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러한 기대(법률이 다의적으로 해석되면 안됨)와 달리 법률의 규율 내용이 실제로는 법관의 해석을 거친 이후에야 비로소 그 의미가 구성되는 것이라면 국민이 행위 당시에 그것을 알고 자신의 행동 지침으로 삼는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근대법의 기획은 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 개개인이 이해할 수 있는 제정을 추구하는데, 법의 적용을 위한 해석을 법문의 의미를 구성해 내는 활동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법률의 규율 내용이 실제로는 법관의 해석을 거친 이후 의미가 구성되는 것이라면 국민이 행위 당시에 그것을 알고 행동 지침으로 삼는 것은 불가능하다.=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 개개인이 이해할 수 없다.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계속 글의 논점에 맞추며 독해를 이어가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법률의 제정과 그 적용은 각각 입법기관과 사법기관의 영역이라는 권력 분립 원칙 또한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하다.

근대법의 기획이라는 글의 핵심 논점에 대한 문제 제기라기보다는 권력 분립의 원칙을 들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핵심 정보와는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나온 정보는? 무조건 문제화되기 마련이죠.

tip - 문단의 마지막, 글의 마지막에서 굳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출제된 지문은 불필요한 내용을 넣지 않습니다. 그러면 굳이 저 내용은 왜 넣었을까요? 당연히 문제화 할라고 넣은 것이죠. 핵심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데 문단의 마지막 쪽에 꼭 넣어놓은 정보의 존재 이유는 수험생들도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 수능 18.06 dns 스푸핑 지문

그렇다면 근대법의 기획은 그 자체가 허구적이거나 불가능한 것으로 포기되어야 하는가? 이 물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답할 수 있다

지금까지 근대법의 기획에 대한 비판이 진행되었죠? 이제 반론에 대한 재반론이 나올 것으로 예측할 수 있네요. 자의적 해석의 방지를 위한 법률의 명확한 기술 + 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 개개인이 이해할 수 있는 제정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제시될 것이고, 이를 어떻게 설명할지에 초점을 맞춰 독해를 진행합니다.

첫째, 법의 해석이 의미를 구성하는 기능을 갖는다는 통찰로부터 곧바로 그와 같은 구성적 활동이 해석자의 자의와 주관적 판단에 완전히 맡겨져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단어의 의미는 곧 그 단어가 사용되는 방식에 따라 확정되는 것이지만, 이 경우의 언어 사용은 사적인 것이 아니라 집단적인 것이며, 따라서 언어 사용 그 자체가 사회적 규칙에 의해 지도된다는 사실과 마찬가지로 법의 해석과 관련한 다양한 방법론적 규칙들 또한 해석자의 자유를 적절히 제한하기 때문이다.

앞서 법의 해석이라는 점으로 근대법의 기획에 대한 비판이 전개되었는데, 법의 해석이 의미를 구성한다는 것이 완전한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에 대한 근거로 언어는 사회적 규칙에 따라 쓰이고, 이로 인해 해석자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을 들고 있네요. 즉 입법자의 의사나 법률 그 자체의 객관적 목적을 고려한 해석은 법문의 의미를 구체화하는 데 머물지 않고 종종 법문의 한계를 넘어서는 방편으로 활용되며 남용의 위험에 놓이기도 한다는 내용에 대한 재반론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론에 대한 재반론이 이어지고 있으니 당연히 반론을 읽을 때 비판의 대상과 비판점, 비판의 이유를 연결해서 읽었듯이 재반론도 이와 같은 태도로 읽어줘야겠죠?

둘째, 해석의 한계나 법률의 명확성 원칙은 법의 해석을 담당하는 법관과 같은 전문가를 겨냥한 것으로 파악함으로써 문제를 감축하거나 해소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법률이 다소 모호하게 제정되어 평균적인 일반인이 직접 그 의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하더라도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통해서 그 의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률의 규율 내용이 실제로는 법관의 해석을 거친 이후에야 비로소 그 의미가 구성되는 것이라면 국민이 행위 당시에 그것을 알고 자신의 행동 지침으로 삼는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점에 대한 재반론이네요. 법관의 해석을 거친 이후에 법의 의미가 구성되는 것이라도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통해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면, 이 점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앞선 부분과 같은 독해 태도로 비판의 내용을 당겨 읽으며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대답에 대하여는 여전히 의문이 생긴다.

하지만 재반론에도 문제가 있나봅니다. 대놓고 [A]라고 묶어놨으니 이 재반론의 문제를 대놓고 문제로 물겠다는 의미겠네요. 재반론의 문제를 파악하며 독해를 마무리해봅시다.

국민 각자가 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념은 사실 '일반인'이라는 추상화된 개념의 도입을 통해 한 차례 타협을 겪은 것이었다.

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 개개인이 이해할 수 있는 제정이 '일반인'이라는 개념을 통해 한 차례 타협을 겪었다는 것은 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 개개인 모두를 포괄하는 것에서 '일반인'이라는 개념의 도입으로 그 범위를 축소시켰다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국민 개개인≠일반인이겠죠? 우리의 통념상 그냥 비슷한거 같은데 지문에서는 이 둘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문을 읽으면서 이 정도의 생각은 하고 넘어가어야 합니다.

tip - 언어에 대한 민감함

과거 수능에서 %와 %p의 차이로 인해 상당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큰 차이가 없어보이지만 %와 %p는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개개인'과 '일반인'은 분명히 구분해야 하지만, 선지를 대충 읽거나 급하게 읽을 때 우리는 이를 구분하지 않는 실수를 범합니다. 평소에 언어에 대한 민감함을 의식하지 않은 사람이 시험장에서 언어에 대한 민감함을 의식하고 선지를 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평소에도 언어에 대한 민감함을 견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전문가'라는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입법자의 부담을 재차 줄이면 근대법의 기획이 제기한 문제의 본질(국민 개개인의 이해할 수 있게끔 제정)로부터 너무 멀어져 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모든 국민 개개인에서 일반인의 개념으로 범위를 축소시켰는데 전문가의 판단(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으로 부담을 또 줄이면 근대법의 기획이 제기한 문제의 본질=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 개개인이 법을 이해에서 멀어진다는 내용으로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A]는 '일반인'의 개념을 도입한 것과 '전문가'의 기준을 도입하는 것 모두 입법자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고 문제의 본질에서 멀어진다는 주장이네요. 이 마지막 [A]부분이 잘 이해되냐, 이해되지 않았냐는 앞선 내용을 독해할 때 핵심(근대법의 기획)을 끝까지 끌고 갔는지가 중요 포인트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tip - 당겨읽기 (편의상 제가 만든 말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독해 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습관입니다. 글을 읽을 때 지시어(이러한, 그, 이에 따라 등등..), 개념어, 논점(ex. 근대법이 제기한 문제의 본질 = 국민 개개인이 이해할 수 있게끔 제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그냥 이러한~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는 독해 습관을 버리셔야 합니다.

**지시어, 개념어, 논점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그 지시어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하고 독해를 진행하는 당겨읽기를 해야 합니다.**

독해를 잘 한다는 것은 결국 얼마나 지문을 잘 이해하며 읽었나입니다. 그런데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 의미를 당겨 읽는 기본적인 습관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문단과 문단의 뜻을 연결하는 유기적인 독해를 연습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문장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수준의 당겨 읽기가 기본이 되어야 그 이후 문단과 문단 그를 넘은 지문 전체를 유기적으로 읽을 수 있는 독해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소한 습관이지만 그 영향력은 사소하지 않고 정말 중요한 독해 태도임으로 꼭 습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 5일차 문제 해설

### 1. [근대법의 기획]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답 ②

지문에서 법이 정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국민이 이해할 수 있어야 법을 통한 행위의 지도와 평가가 가능하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즉 금지된 행위임을 알고도(법이 정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국민이 이해하고) 그 행위를 했다는 점을 형사 처벌의 기본 근거로 삼는다(법을 통한 행위의 지도와 평가)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선지

① : 지문에서 법률의 제정과 그 적용은 각각 입법기관과 사법기관의 영역이라는 권력 분립 원칙 또한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하다는 점이 제시되어 있지만, 이것이 사법 권력으로 입법 권력의 통제를 피했다는 것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 단순 서칭으로 지문에 있는 단어를 대충 조합해서 풀지 말라는 뜻을 가진 선지라고 생각합니다.

③ : 법관의 해석이 없이도 잘 작동하는 법률을 만드려 하지 않았습니 다. 지문에서는 애초에 법률의 명확성은 일정한 해석의 필요성을 배제 하지 않는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쓰이는 명확성과 지문에서 규정한 명확성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④ : 지문에서는 법률이 '다소' 모호하게 제정되어 평균적인 일반인이 직접 그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더라도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통해서 그 의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즉 이해 가능성이 '없는' 법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며, 해석의 부담을 국민이 아닌 법관이 지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⑤ : 애초에 근대법 기획의 기본은 법은 그 적용을 받는 국민 개개인이 이해할 수 있게끔 제정되어야 한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법률로도 국민의 행위를 평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지요.

### 2. 윗글을 바탕으로 ㉠을 비판할 때, 논거로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법률의 내용은 명확해야 한다는 원리

→ 100%의 명확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형식을 띠 수밖에 없으며, 해석의 필요성을 인정함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형식과 해석의 필요성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 + 단순히 뇌피셜로 비판하는 것이 아닌 지문의 내용에 근거한 비판이 이루어져야 함.

답 ①

지문에서는 입법자가 법률을 제정할 때 그 규율 내용이 불분명하여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러한 기대와 달리 법률의 규율 내용이 실제로는 법관의 해석을 거친 이후에야 비로소 그 의미가 구성되는 것이라면 국민이 행위 당시에 그것을 알고 자신의 행동 지침으로 삼는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임을 제시하며 법관의 해석을 거친 이후에 의미가 구성되는 점을 비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번 선지는 법관에 의해 법문의 의미가 구성되지 않으면 자의적 법문 해석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하며 법관에 의한 법문의 의미 구성에 대해 지문의 내용과는 상충되는 입장을 보임으로 ㉠을 비판하기 위한 논거로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선지

② : 지문에서 법의 적용을 법문의 의미를 구성해 내는 활동으로 볼 때 법률의 제정과 적용은 각각 입법기관과 사법기관의 영역이라는 권력 분립의 원칙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즉 법관의 해석을 통해서 비로소 법의 의미가 구성될 경우(법문의 의미를 구성해내는 활동)에는 권력 분립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은 ㉠

에 대한 비판으로 적절합니다.

③ : 지문에서 법률의 객관적 목적을 고려한 법문 해석은 법문의 의미를 구체화하는데 머물지 않고 법문의 한계를 넘어서는 방편으로 활용되며 남용의 위험에 놓이기도 한다는 것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의 객관적 목적을 고려한 법문 해석은 법문의 한계를 넘어서는 방편으로 남용되기도 한다는 것은 ㉠에 대한 비판으로 적절합니다.

④ : 지문에서 실제로는 법관의 해석을 거친 이후에야 비로소 그 의미가 구성되는 것이라면 국민이 행위 당시에 그것을 알고 자신의 행동 지침으로 삼는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관의 해석을 통해서야 비로소 법의 의미가 구성된다고 하면 법을 국민의 행동 지침으로 삼기 어렵다는 것은 ㉠에 대한 비판으로 적절합니다.

⑤ : 지문에서 그것(입법자의 의사나 법률 자체의 객관적 목적)까지 고려해서 법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파악할 것을 여느 국민에게 기대할 수는 없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이 입법자의 의사까지 일일이 확인하여 법문의 의미를 이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은 ㉠에 대한 비판으로 적절합니다.

지문이 반론 재반론의 구성이었고 대부분 근거가 대놓고 명확하게 있었기 때문에 뇌피셜이 아닌 지문에 근거한 판단과 지문 독해 시에 당겨읽기를 잘 하셨다면 무난하게 고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3. [A]로부터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답 ③

지문에서는 국민 각자가 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념은 '일반인'이라는 추상화된 개념의 도입을 통해 한 차례 타협을 겪은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한 차례 타협을 겪었다는 것은 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 개개인 모두를 포괄하는 것에서 '일반인'이라는 개념의 도입으로 그 범위를 축소시켰다고 이해할 수 있고, 전문가의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입법자의 부담을 '재차' 줄였다는 것은 일반인이라는 개념의 도입 또한 입법자의 부담을 줄였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입법은 국민 각자가 이해할 수 있는 입법보다 입법자의 부담을 경감시킬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아마 '재차' 줄였다는 표현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어도, 한 차례 타협을 겪었다는 내용만으로도 답을 고르기에는 무리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머지 선지

① : [A]에서는 국민 각자가 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념은 사실 '일반인'이라는 추상화된 개념의 도입을 통해 한 차례 타협을 겪은 것이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즉 가장 이상적인 법은 '일반인'의 개념을 도입한 것이 아닌, 적용을 받는 국민 개개인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적절하지,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법이 가장 이상적인 법이라는 추론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지문에서 '일반인'과 '국민 개개인'을 다른 의미로 두었다는 것을 인지했다면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지만, 이를 구분하지 않고 독해가 이루어졌다면 난해함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언어에 대한 민감함을 항상 견지하는 습관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② : [A]에서는 '전문가'라는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입법자의 부담을 재차 줄이면 근대법의 기획이 제기한 문제의 본질로부터 멀어질 수 있음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치국가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는 위의 내용과 상충하는 내용으로 법치국가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추론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④ : 국민 각자가 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법률이 다소 모호하게 제정되어 평균적인 일반인이 직접 그 의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하더라도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통해서 그 의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는 '전문가'라는 기준

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A]에서 비판을 하는데, 일상적인 의미와는 다른 법률 전문 용어의 도입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것은 [A]의 내용과 상충하는 추론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⑤ : [A]에서는 국민 각자가 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념을 중시하고 있는데 행위가 법률로 금지되는 것인지 여부를 행위 당시에 알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 입법자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이 법의 요구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A]의 입장과 상충됨으로 적절한 추론이라 할 수 없습니다.

총평

글의 핵심을 끌고 가는 능력, 당겨 읽기 이 두 가지 독해 태도가 중요한 지문과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선지 판단적인 부분은 지문을 잘 읽었으면 선지는 자연스럽게 골라지는, 특별한 추론이나 선지의 이해보다는 지문 자체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봅니다.

핵심 - 핵심에 반론 - 재반론 - 재반론에 대한 비판으로 글이 이어졌는데, 각각을 파편적으로 독해했다면 '아 법지문은 역시 어려워, 이해가 잘 안돼'라고 느끼셨을 수 있지만, 핵심을 끝까지 끌고 가며 핵심에 반론을 이어가고, 그 반론에 재반론을 이어가고 그에 대한 비판으로까지 이어가며 독해를 했다면 글의 이해도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지문이든 글의 핵심을 잡고 독해를 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렇지만 특히 이렇게 반론 재반론 식으로 구성된 지문에서는 핵심을 이어가며 독해를 했을 때와 각 부분을 파편적으로 읽었을 때의 차이가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렇게 글의 핵심을 이어가며 독해를 하기 위해선 제가 지문 해설에서 (괄호)로 표기한 부분처럼 문장에서 앞 내용에 대한 당겨 읽기가 잘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각 문장에서 당겨 읽어야 하는 부분을 당겨 읽으면 자연스럽게 핵심에 대한 이해를 이어가며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문장 수준의 당겨 읽기가 핵심을 전체적으로 이어가며 독해하는 지문 전체를 아우르는 당겨 읽기로 이어지는 지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